

[정말 죽도록 계산 실수 안 하고 싶다면]

[나의 수학성적의 마지막 퍼즐]

[easar]

[이 글은 본문에 집중하느라 디자인은 최소화하였습니다]

이 상품은 PDF 전자책입니다. 기재하신 이메일 주소로 PDF 파일을 전송해 드립니다.

(평일 기준 2일 이내)

상품 특성 상 파일 전송(배송완료) 후 구매 취소나 환불은 안 됩니다.

(참고로 이 글은 행동서입니다.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면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위해 쓴 글입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경우로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 이 글을 꼭 읽기를 추천 드립니다.

Case 1. 항상 수학 시험을 치는데 계산 실수, 어이없는 실수로 꼭 1~2개씩 틀리는 경우

(특히, 3점짜리 문제, 난이도 下 문제를 틀리는 경우)

Case 2. 내가 수학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지만 유독 시험에서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

(집에서 문제 개별로 풀 땐 잘 풀지만 막상 시험장가서 비슷한 유형을 못 푸는 경우)

Case 3. 시험을 정신없이 쳐 시험문제를 Control 하지 못하거나 시간이 모자르는 경우

위 3가지 Case 중 1가지라도 해당이 된다고 하면 이 글이 여러분의 성적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학 실력을 올리기 위해선 크게 보았을 때

- 1) 확실한 개념정리
- 2) 여러 유형의 문제를 풀며 개념을 적용시켜 보는 것
- 3) 틀린 문제와 헷갈리는 개념을 다시 정리하며 피드백하기

이렇게 3가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는 실력+ 시험을 Control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필요합니다. 이 내용은 3번 피드백에 관한 내용 + 시험을 Control 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글은 본인이 시험을 칠 때 가져야 할 태도와 실수를 줄이기 위해 평소 연습해야 할 방법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를 통해 실력 대비 성적의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저자 소개

- 대학수학능력평가 수학영역 (가)형 만점 (2021학년도 수학 (가)형 100점)
-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과 재학
-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여러 학생들 과외 경험 보유

고등학교 내내 수학만 판 수학변태였다. 고등학교 3년동안 수학 공부량은 상위 1%라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였다. 친구들과 담임선생님은 너는 수학공부만 하냐고 할 정도로 수학에 많은 시간을 쏟아 부었다. 중학교 겨울 방학부터 정말 열심히 했는데 수학 성적은 고3 여름방학 전까지 그대로였다. 항상 90~90점을 홍보하는 성적, 수학 문제량만큼은 전교 1등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음을 자신했지만 성적은 그렇지 않았다. 내가 쏟아부은 노력에 비해 결과가 안 나오는 것 같았다. 그래서 방법을 바꿔보기로 했다. 공부 잘하는 주변 친구들, 하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성적을 올린 친구들, 학원 선생님 등 나의 문제점을 말하며 해결책을 구했고, **성적을 올리기 위해 고민하고 내 방법을 점검하며 공부해나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공부하니깐 1달 뒤 바로 다음 모의고사에서 96점을 받았고, 그 이후부터 이 점수 밑의 성적은 받아보지 못했다.

Cf) 참고로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면 정말 뻘한 이야기 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그럴싸한 비법(skill) 이 아닙니다. 수학 실력을 올리려면 탄탄한 개념정리, 많은 문제량과 개념을 문제에 적용시켜 개념을 재정리, 틀린 문제들을 보며 피드백하는 것 이외에 묘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지름길이란 없으니깐요. 그렇지만 자신이 학교 학원에 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몇달, 몇 년째 성적이 안 오르고 있다며 한 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글은 그저 매년마다 나오는 수백명의 수학 만점자들 중 1명이 성적을 올리기 위해 했던 고민중에 깨달은 해결책에 관한 글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조금이나마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글입니다.

[차례]

0. Prologue

1. 계산 실수 줄이기(각종 다양한 실수)

2. 쉬운 문제 무조건 맞추기

3. 당장 행동으로 옮겨라

0. Prologue

“저희 애는요, 항상 계산 실수 때문에 틀리더라고요 ㅎㅎ”

제가 대학생 시절 과외를 시작하고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입니다.

상담한 학부모님들의 80% 이상이 이 말을 하더군요

저는 이런 말을 한 학부모님들의 자제분들에게 항상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계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학생분께서 어떤 노력을 구체적으로 했냐고

그중 십중팔구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저 '다음엔 안 틀리겠지, 컨디션이 안 좋았어.', '실수 안하게 신경써야지' 라는 생각만 했을 뿐

유튜브나 네이버에 '계산 실수 줄이는 방법' 을 치고 방법을 진지하게 찾아보기라도 했으면 그나마 양반인 수준이었습니다.

아직도 어이없는 실수 때문에 틀려 그동안 풀어왔던 수백개의 문제들을 허송세월로 날리고 있는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과외를 하면서 정말 숙제도 열심히 해오고 질문도 잘 해오는 학생도 몇몇 있었는데

이들은 이상하게도 열심히 공부하는 것에 비해 성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저 같은 케이스인 친구들도 보았습니다.

- 정말 문제에서 요구하는 개념과 풀이 방법을 다 알고 있음에도 시험에서 꼭 틀리는 경우
- 어이없는 실수, 계산 실수 등 사소하지만 다양한 실수로 인해 시험에서 틀리는 경우
- 집이나 독서실에서 풀 땀 잘 풀리던 문제들이었는데 막상 시험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음에도 틀리는 경우

이러한 친구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극복했던 방법들을 이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이를 시험에 적용시키고 평소에 연습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고3 시절 처처럼 성적이 몇 달 사이에 바로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제가 제시한 방법들이 맞고 올바른 방향성을 잡아주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확신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방법들은 제가 성적을 올리기 위해 했던 방법들이므로 이 솔루션을 통해 공부방향을 정하면 도움이 분명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